

김을현(시인, 한국지역문학인협회 미디어팀장)



백운초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적이 있다. 졸업을 앞두고, 기쁨보다 아쉬운 마음이 앞서는 듯, 졸업생들의 얼굴에는 눈물도 들어있었다. “세상에서는 만사형통, 운소대통을 이야기 하지만, 지금 시대는 무엇보다도 의사소통이 잘 되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이 안 통하는 것처럼 답답하고 외로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교장 선생님의 말씀 중에 들어있었던 내용이다.

소통한다는 것, 커뮤니케이션이다. 내가 나를 알고, 내가 친구를 사귀고, 세상 사람들과 막힘없이 통하는 것이야말로 큰 즐거움이겠다. 아무리 천재성을 가지고 있어봤자 혼자만 알고 있다면 죽은 지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작은 것이라도 같이 나누고, 서로 화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즉, 소통이 된) 노래가 울려 퍼졌다.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꽃다발을 한 아름 선사합니다.” 벌써 훌쩍이는 친구들, 장내 여기저기서 울음 소리도 들린다. 같이 울고 웃던 정든 교정을 떠난다는 것이 어린 가슴에도 슬픈 것이다. 같이 울 수 있다는 것 또한 소통의 역할이다. 이 얼마나 감동적이며 인간적 아름다움이라.

졸업식이 끝나고 서로서로 연락처를 나누고, 이야기 하고,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한다. 초등학생이라고 하지만 이미 소통의 기술은

다 갖추고 있다. 졸업앨범에도 전화번호는 물론이요, 이메일 주소, 블로그며 싸이월드 등 사이버 활동도 들어있다. 여기서 신 소통이란 조금 생소한 단어를 생각하였다. 다른 의미는 없고, 소통의 진화를 보는 듯, 새로운 소통문화를 눈앞에서 확인하였다.

급진전하고 있는 소통의 문화, 시대의 주역이 될 어린이들도 이미 그 물결을 타고 있었다. 보도 듣고 느끼고 공유하고 마음껏 소통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직접 소통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일방통행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동시에 소통을 한다는 것은 오픈마인드이다.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솔직해 진다. 그만큼 정보가 다양하게 공유된다는 것이다.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무문별한 정보의 홍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로 헤아리기 힘든 다양함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어린이들이 자신의 존재유무를 확인하며, 정체성을 찾는다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어른들의 노파심도 들어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더더욱 지도적 위치에 있는 어른들의 소통이 중요하다. 정보환경을 보살피고, 어린이들의 입장에서라도 항상 생각을 해야 한다.

신소통의 시대, 우리는 이미 소통반경을 늘리고 정보환경을 확대하였다. 검색 하나로 많은 지식을 알게 되지 않았는가? 학교

교육 이외에도 인터넷을 통하여 배우고 익히고 퍼트리고, 그 속에서 사람들을 알게 되고 각자 친해진다. 실제 주변 사람들보다 친해지는 경우도 있다. 그만큼 신소통의 시대는 근거리 원거리의 개념을 희석시켜버렸다.

잠시 눈을 감고 회상을 해보자. 나의 어린 시절과 지금, 그리고 십년 후, 나는 무엇과 어떤 대화를 하고 있을까? 그때도 지금처럼 무언가를 탐구하고, 누군가와 소통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노력하지 않으면 어떠한 결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옛말에



신소통의 시대, 소통의 시대를 사느냐, 살아가느냐. 적극소통을 하느냐, 따라가느냐. 그것이 문제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 나의 꿈, 나의 미래, 나의 에브리씽을 위하여 부단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모든 것은 진화한다. 나도, 나의 생각도, 나를 포함한 세상도 진화한다. 이를 위하여 노력한 사람

에게는 진화이지만, 구경한 사람에게는 변화였을 뿐이다. 광주포럼에 참여를 하면서 기쁨이 된 것이 있다. 노력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이다.

솔직하게 말하면, 텔레비전 리모컨의 조작조차 변변히 알지 못하였다. 스마트폰, 각종 패드의 등장 또한 낯설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조작법만 알고 사용하였는데, 그 기기들의 사용법과 사용가치를 공부하였다.

다양한 공유의 방법을 알게 되었다. 신소통의 의미들이 제공되었다.

스마트 폰이 우리에게 다가온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있다. 생활환경들이 변하고 있다. 아니 진화하고 있다. 광주포럼에 참여하는 분들은 시대의 조류에 스스로 뛰어들었다. 내가 먼저 알고, 확인하고, 그것을 통하여 다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 세계를 어찌 어린이들에게 던져주겠는가? 하나를 알아도 제대로 알자. 그리고 서로 공유하자. 서로 배우고 가르치자. 교학상장이다.

숨샤넬, 나의 딸은 6살이다. 어린이집에 다닌다. 하지만 나의 스마트 폰의 기본조작을 꿰고 있다. 나는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다. 여기저기서 어깨너머로 본 것이다. 그 실력으로 친구들에게 문자도 보내고, 셀프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첨부파일도 한다. 처음에는 놀랐다. 하지만 내 앞에 펼쳐진 현실인 것이다. 무조건 막을 수만은 없다. 지혜로운 판단은 각자가 내려야 한다.

“아빠, 내 사진을 올려줘.” 자신을 페이지를 만들어서, 매일 찍고 말하는 것을 업데이트 해 달라는 말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해 보았다. 이것은 이 아이의 기억과 관계된 일이다. 내가 6살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신소통의 시대를 사느냐, 살아가느냐. 적극소통을 하느냐, 따라가느냐. 현명한 선택을 해야겠다. “우리는, 배우고 익힌 것을 통하여 내일을 개척한다.” <갈매기의 꿈>을 쓴 리처드 바크의 말이다.